

UPDATE. 2019-09-30 21:12 (월)

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앱

全北日報

기사 검색

Q Q

유서대학교

전북한민대학교의 새 지평을 연다
LINC+ 선정 5년간 200억 투입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스포츠 지역 사람들 오피니언 기획 주말 만평 포토 시·군 소식통 TV/연예

HOME > 교육 > 초중등

전주동초, 지역사회와 손잡고 통합교육 전개

김보현 승인 2019.09.30 20:28 댓글 0



[교육] 전체기사 교육일반 초중고 대학

원도심에 위치한 전주동초등학교(교장 김정희)가 지역사회 전문가와 손잡고 실험적인 통합교육을 전개해 눈길을 끈다.

‘부모의 성장이 곧 자녀의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학부모·지역민을 학교 교육활동에 필요한 전문가로 양성해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다.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학부모의 성장, 나아가 학생, 학교, 마을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유)서은옥푸드(대표 서은옥), 강군커피코리아(대표 강동영)의 후원으로 제과 및 제빵, 바리스타 전문 자격증반을 10월에 개설해 통합교육의 첫발을 내딛는다. 전문자격교실을 수료하는 학부모는 향후 전주동초등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실험적 교육활동모델을 제시한 전주동초등학교 박효준 교사는 “우리아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학부모다.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 없이 학교 교육만으로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학부모가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아이들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면 학교가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김보현

다른기사 보기 ▶

댓글 0

댓글입력

✓ 최신순 추천순

많이 본 교육 뉴스

1. 군장대-(주)제이투씨, 휴채인식 기반 자...
2. 전북교육청 가입한 '교원칭해 보험' 실...
3. 전주비전대 자동차학과 미용건강과, 27...
4. 전주교대, 26일 국립대학 육성사업 일...
5. 전북 일반고 교실당 학생 24.8명...과학...
6. 인권위 폐지 권고한 '전북 자율중, 인접...
7. "학종 비교과 폐지는 본질 흔들기만, 내...
8. 전주동초, 지역사회와 손잡고 통합교육...
9. 우석대학교 '우석 커리어 업! 제7기 서...
10. 전주비전대 목회자 탁구대회 100여명...



전북일보 연재리스트

NIE

지난연재 다시보기 연재리스트 더보기

전북일보 소개 고충처리인 불편집고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이메일무단수집거부 RSS

全北日報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063-250-5500 | 팩스: 063-250-5550, 80, 90

제호: 전북일보 | 등록번호: 전북 아 00005 | 발행인: 서창훈 | 편집인: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강인석

전북일보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전북일보.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2019

주요뉴스 최종편집 2019.09.30 20:44

시작페이지로

즐거찾기추가

구독신청

로그인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전주매일신문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Q 검색



PDF지면보기

QUICK VIEW

전주매일

NEWS

전체보기

교육 일반

대학

뉴스 홈 > 교육 > 교육 일반 기사목록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전주동초, 지역사회와 손잡고 통합교육 실험적 교육활동 전개

전주동초, 지역사회와 손잡고 통합교육 실험적 교육활동 전개

기사입력 2019-09-30 오후 8:23:00 | 최종수정 2019-09-30 20:23



원도심에 위치한 전주동초등학교(교장 김정희)는 지역사회 전문가와 손잡고 '부모의 성장이 곧 자녀의 성장'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손잡고 통합교육을 기획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유)서은옥푸드(대표 서은옥, 지역민), 강군커피코리아(대표 강동영, 33회 졸업생)의 후원으로 학부모, 지역민을 대상으로 제과 및 제빵, 바리스타 전문 자격증반을 10월 개설해 통합교육의 첫발을 내딛는다. 전문자격교실을 수료하는 학부모는 향후 전주동초등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전주동초등학교 자문변호사인 김도현 변호사는 "학부모, 지역민에게 학교교육활동 참여 및 실생활에 유용한 자격증 취득을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있어 호응이 매우 좋다"며, "자격증을 취득하는 학부모는 향후 학교에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의무적 참여방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전주동초등학교 관하준 교사는 "우리아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학부모다.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 없이 학교 교육만으로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학부모가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아이들의 교육에 직접 참여한다면 학교가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장은성 작성기사 더보기

스크랩하기

내 스크랩보기

주소복사하기

메일

프린트

스폰서 링크

고창복분자, 블루베리 농장 <http://www.bokbunjablueberry.co.kr>

블루베리 체험농장, 블루베리 모옥

친환경 과실원액 전문가업 베리나라 <http://www.berrynara.com>

아이들도 즉시 따먹을수있는 과실로 만들어 믿을수있습니다.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제목을 적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의견등록

▲ 다음기사글이 없습니다.

▼ 학교행정실장 학교자치 역량 강화

교육 일반 기사목록 보기

교육 주요기사

본일별 주요뉴스

종합

- 이원택 前 전북도 정무부지사 민..
- 뿌리깊은 나무
- 전주시, 3분기 택시 친절기사 선..
- 남원 사매초 밴드 동아리 '원피..
- 익산낭산다례원, 독특한 향기와 ..
- 호원대, 제8회 예비 치과위생사 ..
- 전주파티마신협 장애청소녀와 ..
- 정읍시 서부복지센터, '제1회 ..
- 전주비전대 자동차과,미용건강과..
- 전주비전대 목회자 탁구대회 성..

전체목록



이원택 前
전북도 정무부
지사 민..

오늘의 포토

더보기



전북채조경연
대회 성료... 고
창 ..



전북스포츠클럽
학센터, '마지
막 1..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마법의 성 - 여성의 명기

[칼럼] 일이 써요

신천지예수교회 교역자 일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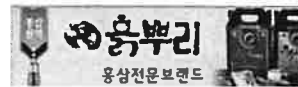
마법의 성 - 임신이 잘 되는 ..

전주 지진규모 7.0 발생시 사..

투데이안 시식테이스트 줄여주기 후기

추천하기 보도자료 로그인 회원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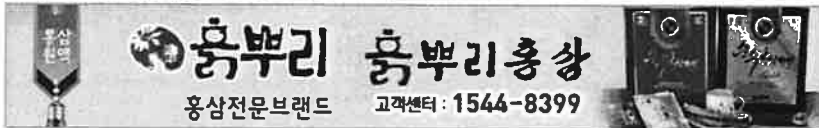
투데이안
www.todayan.com



검색 할 기사를 입력하세요.

전체기사 정치 행정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여성 레포츠 관광 사람들 연예 신년사 이슈엔 이슈 싱크탱크 영화 기획특집

어린이재단 "이만큼의 세상 밖에 못 보여줘서 미안해" 24개월 수지의 아버지는 할아버지



뉴스
교육

전주동초, 지역사회와 통합교육의 실험적 교육활동

장규섭 기자 | bhaum2730@naver.com

+ - 2019.09.30 10:18:00



[투데이안]원도심에 위치한 전주동초등학교(교장 김정희)는 지역사회 전문가와 손잡고 '부모의 성장이 곧 자녀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 교육활동에 필요한 전문가를 지역사회와 손잡고 직접 양성하고, 이를 학교에 환원하는 실험적인 통합교육을 기획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유)서은옥푸드(대표 서은옥, 지역민), 강군커피코리아(대표 강동영, 33회 졸업생)의 후원으로 학부모, 지역민을 대상으로 제과 및 제빵, 바리스타 전문 자격증반을 10월에 개설해 통합교육의 첫발을 내딛는다.

전문자격교실을 수료하는 학부모는 향후 전주동초등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전주동초등학교 자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자청의 김도현 변호사는 "학부모, 지역민에게 학교교육활동 참여 및 실생활에 유용한 자격증 취득을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있어 호응이 매우 좋으며, 자격증을 취득하는 학부모는 향후 학교에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데 의무적 참여방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학교를 적극적 교육활동 공간으로 펼쳐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회성의 교육이 아닌 전문적인 자격 교육을 통해 학부모의 성장 및 학부모 교육기부를 통한 학생의 성장, 나아가 학교와 마을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 순환적 이색적인 교육활동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험적 교육활동모델을 제시한 전주동초등학교 객원교사는 "우리아이들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학부모다.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 없이 학교 교육만으로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학부모가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아이들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면 학교가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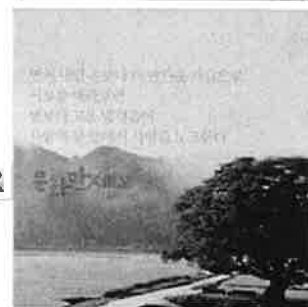
▶장규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2019.09.30 10:18:00



가장 많이 본 기사

- |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
| 1 | '신안산선'의 先 작품 後 설계변경' 제시, 국 | | |
| 2 | [전북교육청]당곡초등학교 지역연계 예술 | | |
| 3 | 전통과 미래가치 품은 전주역사 신축 본격 | | |
| 4 | 대중 '이탈', '타파'보다 세다...내달 2일 남 | | |
| 5 | 원주와일드푸드축제 행정 신바람 제조대 | | |
| 6 | [부안군] 제3회 개화 유채밭축제 그리고 | | |
| 7 | 전북경찰, 가을 수확철 농·축산물 절도 | | |
| 8 | [전북도]금강혁신의 선도적 역할 기대 | | |
| 9 | 국민연금공단,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15 | | |
| 10 | [전주시] 인성 교육 콘서트 '봉준 콘서트' | | |



가상화폐로 10억 인증한 카페회원

